

# 극락정토 · 천당 · 대동... 종교적 이상향을 논하다

**유토피아 인문학**  
보광 스님 등 저자  
석탑출판 펌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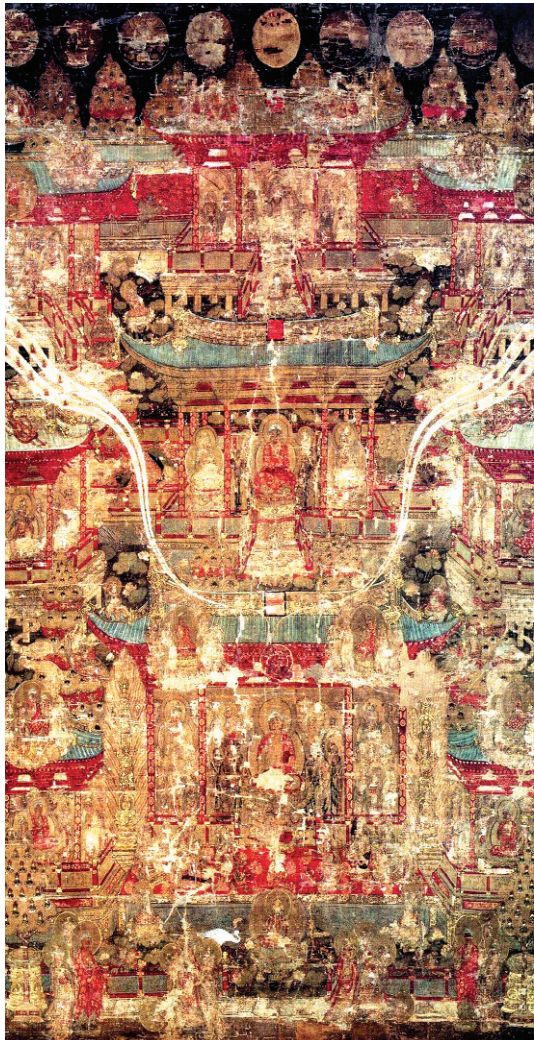
불교의 극락, 기독교의 천당, 유교의 대동세상. 동서양과 세계 종교, 철학에는 이 같이 이상향이 존재한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이상향을 통해 자신의 세상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삼았다. 각기 다른 종교와 철학 안의 이상향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문학, 자연과학 통섭 학술모임인 한길모임(회장 박재갑)이 각 종교와 철학의 이상향을 조망하는 <유토피아 인문학>이라는 논서를 발간했다.

이 책의 가장 특징은 불교, 기독교, 유학 등 종교와 전문학, 철학, 의학에 이르는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 이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인선도 눈길을 끈다. 불교의 이상향에 대해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보광 스님이 논했으며, 기독교에서는 이장배 감리교 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유학은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조교수가 참가했다.

자연과학인 전문학적 관점에서 이상향에 대해서는 최규홍 연세대 전문우주학과 명예교수가, 정승용 서울대병원 대장암센터장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사후 낙원을 조망했다. 한국인의 낙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한국 경희대 특임교수가 상세히 설명했다.

불교의 이상향 개념에 대해 논찬한 보광 스님은



고려 후기의 '관경심곡변상도' 일본 오테키지(大高寺) 소장돼 있다. 이 작품은 <관무량수경>의 중심 부분인 정종분(正宗分)의 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극락세계의 열여섯 가지 장엄한 모습을 관상함으로써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토(淨土)'에 주목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천상 세계를 수용하기도 했지만, 후기 대승불교로 가면 '정토'의 개념이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스님은 "가장 수승한 정토인 극락세계는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라며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는 방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으로 부처님은 제시하셨다.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불 명호를 열 번만 불러도 왕생할 수 있다는 경구이다"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의 천국은 피안적 공간이 아니다. 즉, 죽어서 육체를 떠난 인간의 영혼이 홀로 가는 천국은 없다는 것이다.

- 종교인, 철학자 6명 유토피아 조망
- 대승불교는 淨土 통해 이상향 그려
- 개신교 권속 개념 · 유교 민본의 뿌리
- 성스러움의 회복이 이상향의 완성

이장배 교수는 "하느님 지배가 이뤄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구약성서로부터 이어진 기독교의 핵심"이라며 "하느님 지배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정의와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시아 정신유산인 유학은 이상사회가 아득히 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유학이 말하는 이상향은 이미 과거에 실현됐고, 현실에 실현돼야 하며, 후대에도 지속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동세상'이다.

이에 대해 고재석 교수는 "이상향의 실현은 소수 권력자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내재된 본래가치의 확립을 통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이 추구했던 유토피아 '낙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사회라는 큰 틀 속에 포괄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지주의의 도덕국가, 신분의 평등사회, 실학의 민본사회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전통 보다는 명분과 평등의 가치가 더 중시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사상적 뿌리로 작용했다.

전문학에서의 이상향 개념도 흥미롭다. 우주의 모습, 그 광활함과 오랜 역사를 탐구하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오묘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 있음, 숨 쉬고 있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음, 감사하고 기뻐하며 바로 이 순간이 그토록 찾아마지않던 이상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과학이나 철학, 종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유토피아를 달리 표현한다"며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 폭넓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안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종교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성스러움을 회복해 모든 만물이 귀하고 조화롭게 자리하는 세상을 완성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선사 일대기 만화로

경허스님  
글 그림 정수일 | 운주사 펌 | 1만2천원



승유역불의 암흑 속에서 선의 등불을 밝혀 선종을 일으킨 근세 한국 선의 효시이자 중흥조. 때론 상식을 벗어난 기행과 파격으로 잡자고 있던 선의 활발발한 정신을 일깨운 대선사. 그 어떤 것에도 무애자재하여 걸림 없던

대자유인 등등. 이 책은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가 열 손가락이 모자라 정도인 경허선사의 치열하면서도 거침없는 삶을 만화로 재미있게 구성했다. 전주 자동서터 태어난 경허(鏡虛, 1849~1912)선사의 속명은 송동욱(宋東旭)이다. 법명은 성우(性牛)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9살에 지금의 과천 청계사에서 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한 선비를 만나 문리가 트였다. 15살 무렵 계허 스님이 환속하면서 그를 당시의 대강백인 동학사 만화 스님에게 추천했고,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경론을 배웠다. 하니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총명함으로 내외전에 정통해 팔도에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마침내 23살의 젊은 나이에 강사가 돼 경론을 강의하니 전국에서 학인들이 몰려들었다.

31세 되던 해, 예전의 스승 계허 스님을 찾아 길을 가던 도중,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두려움을 맞보았다. 그리고 문자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동학사로 되돌아와 '금생에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맹정진 화두를 참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 소가 되어도 못구미 없는 소가 된다는 것일까?"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어, 옛 부처가 생기기 이전 소식을 알아차려서 활연히 앞에 나타나 대지가 평평하게 침묵하고 사물과 내가 모두 잊어지고 백천 가지 범법과 무량한 묘의(妙義)가 당장에 얼음 녹듯 했고, 이로부터 몸을 초탈해 작은 법도에 구속되지 않고 임운등등(任運騰騰)하고 유유자적했다.

그 뒤 속가 형인 태허 스님이 주지로 있던 천장암과 개심사, 부석사 등을 오가며, 어떤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묵상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위해 설법해 크게 선종을 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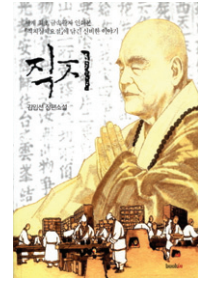
이후 전국 곳곳에 선원을 만들고 결사를 이끌었으며, 안거 전통을 회복시키는 등 이미 그 명백이 끊어져 흔적조차 희미하던 한국의 선불교를 크게 일으켜 세웠다.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 스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선풍이 일어, 발심한 납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융성했다. 때론 폭풍같은 가르침으로, 때론 파격적 기행으로 후진 양성과 교화에 힘쓰던 선사는 돌연 56세에 그 자취를 감추고 세속에서 만행하며 인연 따라 교화하다가 1912년 함경도 감산 용이방에서 입적하니, 율해로 열반 101년이 된다.

이런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구성해 어린이들은 물론 초심자들에게도 책이 술술 읽히게 구성했다.

김주일 기자

## <직지>를 만든 백운과 묘덕의 이야기

직지  
김임선 저 | 복인 펌 | 1만2천원



“자신을 천거했던 태고보우에게는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누가 부른다 하여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때 백운은 해야 할 일을 따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지'였다. <직지>를 만들자면 우선은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던 책이지만 <경덕전등록> 전 30권을 다시 읽어야 하고 그 외 사전부의 여러 불서들을 섭렵해야 할 일이었다.” 고려시대 백운경한 스님이 엮은 <직지>의 금속활자본이 나오기까지 백운 화상과 비구니 묘덕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원래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고,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요>, <직지>라고 약칭된다. 이 책을 엮은 이는 백운경한(1287~1374) 선사이다. 그의 나이 75세 때 저술되었고, 1377년(고려 우왕 3

년) 6월에 청주목 밖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됐다. 이때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보다 약 70년 앞선 때다. 책의 내용은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역대 불조사들의 어록을 수록한 <불조직지심체요절> 내용 가운데 중요한 대목만 따온 것이다. '직지심체'는 '직지인심 경성성불'에서 나온 말로 수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보면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소설 <직지>는 <직지>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보다는 <직지>를 저술한 백운 스님과 스님을 마음에 품고 정안군과 혼인할 수밖에 없었던 비구니 묘덕의 이야기에 무게를 두었다. 작가는 백운 화상과 비구니 묘덕의 인연을 부처님 말씀이 담긴 <직지>를 가운데 두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기묘하게 풀어나간다.

백운은 어려서 출가한다. 지공 선사로부터 공명계첩을 받기 위해 송수사를 찾은 어린 임연옥을 처음 만난다. 그 후 그들의 인연은 깊어졌으나 연옥은 왕의 사위 허종의 눈에 띄어 그의 후실이 되고 만다. 백운과 함께 도망치기 위해 담을 넘어 연옥이 몸을 크게 다치고, 허종은 백운이 시자로 있는 구지암의

정효에게 연옥의 회생을 부탁한다. 정효를 연모하는 강금의 묘사로 정효는 연옥을 범한 사람이 되고, 허종은 군사를 보내 구지암을 불태운다. 정효는 그 화마 속에서 열반에 든다. 스승에 대한 충격, 깨달음에 대한 회의 등으로 백운은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유랑하던 중 강금이 연옥의 딸 능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능금에게 연옥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집을 알려 주고 원나라로 유학을 떠난다.

연옥의 어머니는 능금을 보고 딸 연옥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 믿는다. 능금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 연옥이 어릴 때 받았던 묘덕 불명의 계첩을 전해 받고 묘덕으로 살기 시작한다. 백운이 원에서 돌아오고 묘덕은 백운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는다. 묘덕은 백운이 <직지> 간행에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소설 <직지>는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직지는 완성되고 백운은 입적한다. 강금이 보낸 남자들이 능금의 몸을 유린하고 능금은 어머니 연옥처럼 시골집안에서 된다. 강금은 자신의 재물을 묘덕의 이름으로 시주하여 <직지>의 활자본을 간행하게 된다.

엮힌 인연의 전개 속에서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소설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0 ~ 3/26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기문화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웅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생앤마켓스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6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7	삶이 값진 것은 사자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새로운 불교공부	우학	좋은인연
9	진광불회	유철주	담원북스
10	니까야 강독	각목,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천하의 모든 성패(成敗), 이 원리에 따라 갈린다!**

##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법칙-

여기 그간의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를 10개 영역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 성공법칙들을 제시한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자 위력적인 전략들은, 때로 패부를 찰리는 아름이 이 일침들은 당신을 강한 전사(戰士)로, 지혜로운 책사(策士)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뜻한 바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국인재경영연구회 편/ 신국판/ 전10권/ 총3,600여쪽/ 할인보급가 99,000원(정가 138,000원)

- ▶인간관계: 반대자는 곧 협력자 외
- ▶자기개발: 완벽주의자는 위험하다 외
- ▶대화의 기술: '알았다'는 말의 의미 외
- ▶기획력: 기회를 만드는 감정이입 외
- ▶리더십: 리더십과 통솔력의 차이 외
- ▶창조력: 아이디어맨들이 갖는 공통점 외
- ▶행동력: 문제는 없지만 세 가지 밖에는 없다 외
- ▶관리력: 어떻게 무엇을 꾸짖을 것인가 외
- ▶인간의 매력: 가장 큰 약점, 허영 외
- ▶시상성공: 장사가 잘려면 কে도에 오르지 않을 때 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본 시리즈는 직장인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도서로 선정되어 도서통신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사람에 대한 명징한 이해 그리고 사람 간에 작동되는 상호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허를 찌르는 기발한 역발상이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즐김 몰라 놓쳤던 것에 대한 이론 자극과 함께 섬광처럼 번뜩이는 힌트를 만나게 된다" -전현천(누리교회 대표)-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후 송금하시면 됨.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대부분의 병(病), 의외로 치료가 쉽습니다!**

##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천연의약요법전서-

어찌된 병고 지나쳤을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경이로운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감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응용법 등 전통의약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과 임상으로 얻은 양질의 천연의약술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토록 한 명실공한 자기진단치료 시대를 개막시킬 기념비적 위업!

권형세 저/ 전3권/ 4x6배판/ 양장본/ 3,600쪽/ 할인보급가 24만원(정가 40만원)/ 신유카드 및 현금 분할도 가능

- ▶1권 약초 편: 1천 종류 약초를 총괄 도해화, 폭넓은 이해를 돕는 본초학도감으로 꾸밈.
- ▶2권 처방 편: 1천여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설명과 함께 전통민간요법 사상 최고의 처방 (22,600여 단방)을 약재별로 제시, 딱해 쓰도록 함.
- ▶3권 조제 편: 당대의 명(名醫)을 위시, 민가·사찰 등에 전수 발전되어온 각종 주침 (약술·탕전·약차·식이 요법 등 2,600여 응용치유법 명라.

◆ 자연과 전통에서 찾아낸 최고도 가장 완전한 처방전 ◆

"현대란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토종약초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 -경향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줄을 전"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 -경향신문-  
"약" -한국의약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줄을 전"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 -경향신문-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엄혹한 필연을 어찌할 건가.**

## 업(業)

나(我), 결과이자 반드시 원인. 그 섭리 인과(因果)윤회 이야기!

1. 전생업의 비밀 2. 사후세계의 비밀 3. 심령치료의 기적 4. 내가 본 저승세계 5. 명계에서 온 편지 6. 영혼의 목소리 7. 전생이야기 8. 범의령이야기 9. 살아있는 조상령들 10.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11.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

지자경 외 저/ 전9권/ 신국판/ 총 3,000여쪽/ 할인보급가 97,000원(정가 121,500원)

가장 해박했던 정신이 담은 불교적 사유(思惟)와 성찰의 정점!

## 불교명저

1. 불교란 무엇인가 2. 선이란 무엇인가 3. 부처는 누구인가 4. 관음이란 누구인가 5. 반야심경은 살아있다 6. 선방이야기 7. 율해전생 8. 반야의 문 9.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10.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

일명 서경보 저/ 전10권/ 신국판/ 총 4,500쪽/ 할인보급가 175,000원(정가 250,000원)

## 불(佛)의 세계

생생히 묘사된 업(業)에 호자는 전율을 갖기며 빠져진 각성을 하게 될 것!

그림(佛圖)을 통한 강렬하고 즉발적인 깨우침을 겨냥한 기획! 사바의 미용을 깨우는 불가 교리를 대중 친화적으로 도해(圖解)해낸 역지!!

1. 제불(諸佛·권유 800) 편/ 2. 지옥(地獄) 편/ 3. 명계(冥界) 편/ 4. 선방(禪堂) 편/ 5. 율해(律海) 편/ 6. 선방(禪堂) 편/ 7. 율해(律海) 편/ 8. 율해(律海) 편/ 9. 율해(律海) 편/ 10. 율해(律海) 편

서(書)로 도(道)를 이루려한 치열했던 구도자 김경희, 서화사에 가장 우뚝한 분수령 추사 미학의 절정(絶頂)!

## 추사명필집(秋史名筆集)

"투박한 듯 날렵 경쾌하며 섬세 치밀한 듯 질풍노도인 추사의 그 도저한 경지를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한국학자도원 편/ 전2권/ 대형판형/ 양장본/ 할인보급가 13만원(정가 70만원)